



JDC 이사장 임기 말 인사 강행 논란

양영철 이사장, 7일 임기 종료돼 관리형 체제로 임원추천위, 현재 새 이사장 임명 절차 진행 중

양 이사장, 관행 깨고 대규모 승진·전보 인사 계획

이달 7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사장이 이달 말 대규모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사장 임기가 끝나 관리형 이사장 체제에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신입 이사장의 인사권과 조직 운용 권한을 제약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여태까지는 임기말 인사를 자제했던 것이 관행이다.

JDC는 양영철 이사장의 임기가 이달 7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입 이사장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추위는 이달 현재 서류와 면접

심사까지 마무리하고 3명의 후보를 선정,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추천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들 중 한 명을 신입 이사장으로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 기관으로 분류되며, 이사장의 임명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이처럼 신입 이사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JDC는 이달 말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승진은 4급에서 6급까지의 근무연한을 중심으로 하고, 3급 이상 승진은 성과를 중요시할 예정이다.

양 이사장이 대규모 인사를 단행

키로 한 것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새 이사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리형 이사장 체제에서 인사 등 조직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 이사장 임명을 앞두고 인사를 단행할 경우 정책 연속성 저해, 긍정성 논란, 조직 혼란, 새 이사장의 인사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을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업 추진이나 주요 정책 변경과 같은 중대한 결정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는 통상적으로

현행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업무 수행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사업이나 기관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정책 결정은 제한된다. 특히 예산 집행, 대규모 인사, 중장기 계획 변경 등은 직무대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하면 기관 운영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임기 말 단행된 인사는 신입 이사장의 정책과 맞지 않을 수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새 이사장이 다시 인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비효율적 운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JDC 관계자는 “임기 말에는 인사를 안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사장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8일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 제공

“우리 아이들 미래 교육 위해 함께 합시다”

제주도-서울시교육청, 지속가능 교육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시교육청이 지속가능 교육협력 사업 발굴과 지역가치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서울시교육청과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적 가치 등을 서울시교육

청 소속 공무원과 학생, 학부모와 공유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앞으로 교육협력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주요정책 협력개발 및 상호 벤치마킹,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시책 및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한다.

또 제주도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습과 휴가를 결합한 연계이동을 운영해 지역체류형·문화형·역사형 등 제주만의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담은 다양한 교육체험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제주 안심수학 여행서비스를 통해 서울시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학여행을 즐기도록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시설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요원 고용비, 차량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교육부와 함께 역사·문화·농촌 체험형 수업을 연계이동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연계이동 사업이 심화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서울시교육청 간 교류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제주도와 교육사업뿐만 아니라 역사적 의미가 있는 평화사업에서도 교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상민기자

“농어촌유학 거주비 지원”

도교육청, 조례 제정 추진

도시를 떠나 농어촌으로 단기 전학하는 이른바 ‘농어촌유학’을 제주에서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교육청은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농어촌유학의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 추진 등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어촌 유학은 제주도 외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도내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을 일정 기간 재학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감은 농어촌 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 사업, 특화된 농어촌유학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 사업, 농어촌유학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소정기자

문인관점에서

제주의 아픔을 세계의 평화로...

오는 6월 로마 교황청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서 ‘제주 4·3 평화 레퀴엠’이 연주될 예정이다. 이는 제주 4·3의 아픔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확산하는 뜻깊은 행사다. 제주와 로마의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 역사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문화 외교의 장이 될 것이다.

이번 제주 4·3 평화 레퀴엠은 제주 출신 피아니스트 문효진이 작곡하고, 자코포 시파리 바티칸 전속 지휘자가 지휘를 맡는다. 또한, 로마 북스인아르페 협회의 협력 아래, 로마 오페라극장 소속 연주자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특히 프란



한 동 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황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밝히며, 제주와 오스나브뤽 간의 평화 교류 확대를 희망했다. 또한, 오스나브뤽 시립극장에서 해너(haenyeo) 작품이 최고 관객상을 받은 점을 계기로, 오는 9월 베스트셀러 작가 기범 축제에서 제주 해너 영화를 개막작으로 상영하기로 결정장 소속 연주자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특히 프란

오는 6월 로마 교황청서

제주4·3 평화 레퀴엠 연주

청소년들 함께 무대 꾸며

4·3 추모 문화 지속돼야

치스코 교황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행사의 무게감은 더욱 크다. 이는 제주 4·3이 한국을 넘어 세계 평화와 인권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달 13일 필자는 독일 오스나브뤽에서 열린 제주 4·3 평화 레퀴엠 관련 회의에 참석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오스나브뤽 시의회 및 문화 관계자들과 평화 및 문화 교류 방안을 논의하며, 제주 4·3 레퀴엠이 국제적으로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모색했다.

오스나브뤽은 유럽 내 대표적인 평화의 도시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제주와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프강 베크만 시의회 의장은 한국이 최근 정치적 상

이번 ‘제주 4·3 평화 레퀴엠’

은 단순한 추모 행사가 아니다. 제주 4·3의 아픔을 세계와 공유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다. 또한, 이번 공연을 통해 제주가 국제적 평화 외교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제주 4·3 레퀴엠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제주포럼을 통해 오스나브뤽시와 평화·문화·환경 교류를 확대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는 제주 4·3의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그 아픔을 평화의 메시지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번 제주 4·3 평화 레퀴엠이 세계에 제주 4·3을 알리고, 나아가 제주가 평화와 화합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제주도의 평화 외교가 더욱 활성화되어, 세계가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제주 4·3 추모 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언제, 어디서나 인재양성에 힘쓰시는 동문 제위의

임용, 승진, 전직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교장 총합: 3명

임용부서	직	성명
덕령초등학교	교장(중임)	김성미
하례초등학교	교장(중임)	장금희
도림초등학교	교장(중임)	현미옥

2. 승진: 30명

□공모교장 → 교장: 1명

임용부서	직	성명
봉개초등학교	교장	한미숙

□교감 → 교장: 14명

임용부서	직	성명
홍산초등학교	교장	강형준
서귀중양초등학교	교장	강홍선
시흥초등학교	교장	고기수
보성초등학교	교장	김성철
가마초등학교	교장	김승진
삼성초등학교	교장	박수경
김녕초등학교	교장	양정인
서귀포초등학교	교장	오영실
서광초등학교	교장	우정훈
영평초등학교	교장	이윤정
신정초등학교	교장	현영희
강정초등학교	교장	현정임
수원초등학교	교장	홍영순
도평초등학교	교장	황재홍

□교사 → 교감: 15명

임용부서	직	성명
우도초등학교	교감	강민석

임용부서

제주대학교2교대학부상동초등학교	교감	강태규
효돈초등학교	교감	고석훈
추자초등학교	교감	고옥희
재령초등학교	교감	고은미
인화초등학교	교감	김대진
시흥초등학교	교감	박승정
아라초등학교	교감	박윤경
의귀초등학교	교감	유대봉
하귀일초등학교	교감	윤대봉
애월초등학교	교감	이정호
노형초등학교	교감	지형인
장전초등학교	교감	한정화
신제주초등학교	교감	현소은
금악초등학교	교감	현승임

3. 전직: 33명

□교육전문직원 → 교장: 6명

임용부서	직	성명
아라초등학교	교장	오상혁
도평초등학교	교장	양미지
수산초등학교	교장	김경화
신제주초등학교	교장	강동환
삼화초등학교	교장	신문진
해안초등학교	교장	김남규

□교육전문직원 → 교감: 5명

임용부서	직	성명
한라초등학교	교감	강성기
저정초등학교	교감	김영미

□교사 → 교육전문직원: 12명

임용부서	직	성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다문화국제정책과	장학사	안연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과	장학사	김경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과	장학사	김성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과	장학사	손영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지원과	장학사	강은호
남평초등학교	교육연구사	강명남
동홍초등학교	교육연구사	고은주
삼양초등학교	교육연구사	김현민
이도초등학교	교육연구사	송병주
도림초등학교	교육연구사	양수연
신제주초등학교	교육연구사	이진
외도초등학교	교육연구사	홍남권

4. 교장 전보: 12명

임용부서	직	성명
삼양초등학교	교장	강정희
신춘초등학교	교장	고선자
월말초등학교	교장	고종희
제주북초등학교	교장	박문열
오라초등학교	교장	부인순
선홍초등학교	교장	부철희
조천초등학교	교장	양순옥
남원초등학교	교장	이창환
어도초등학교	교장	한진숙
남평초등학교	교장	허정민
남원초등학교	교장	현석하
하귀초등학교	교장	현진일

5. 교장 전보: 13명

임용부서	직	성명
관급초등학교	교감	김효철
덕령초등학교	교감	양효숙
어도초등학교	교감	이영민
일도초등학교	교감	고일립
제주중초등학교	교감	고형훈
제주사초등학교	교감	고동림
조천초등학교	교감	고세실리아
해안초등학교	교감	이경아
도순초등학교	교감	강순열
신례초등학교	교감	강은심
법흥초등학교	교감	김정익
대흥초등학교	교감	김해숙
덕수초등학교	교감	조향선

6. 교육전문직원 전보: 9명

임용부서	직	성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과	장학관	김명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지원과	장학관	김성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지원과	장학사	강수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지원과	장학사	고형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지원과	교육연구사	고희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지원과	장학사	양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지원과	장학사	오남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지원과	장학사	이명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지원과	장학사	정미영

7. 신규교사: 80명 외 30명

* 본 광고로 개별 축하를 대신합니다.*

제주교육대학교총동창회 회원일동

직 위	성 명	졸업 회기
회 장	백 철 호	교대 18회
수석 부회장	김 순 관	교대 19회
상임 부회장	박 희 순	교대 21회
문화 부회장	박 형 속	교대 18회
연수 부회장	양 호 순	교대 18회
교련 부회장	이 진 경	교대 19회
섭외 부회장	조 미 영	교대 19회
체육 부회장	조 윤 하	교대 20회
홍보 부회장	서 성 실	교대 21회
감 사 사	서 승 필	교대 30회
김 사	김 은 정	교대 31회
사 무 국 장	강 태 규	교대 34회
사 무 차 장	강 희 창	교대 48회
문 화 부 장	김 진 희	교대 24회
연 수 부 장	안 미 영	교대 25회
교 련 부 장	김 진 미	교대 26회
섭 외 부 장	강 인 구	교대 27회
체 육 부 장	김 희 정	교대 28회
홍 보 부 장	고 종 희	교대 29회